

기본사업 03-2

IIEP/UNESCO – KRIVET

평생학습의 실현

국제 세미나 결과 보고서

연구책임자 : 정지선

공동연구자 : 김승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머 리 말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로 평생직장의 시대에서 평생직업의 시대로 되면서 평생직업능력을 중핵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성인들은 학습을 통하여 평생동안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 속에서 국가 간의 정보와 아이디어의 교류와 협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국제기구와의 협력의 중요성은 갈수록 그 비중이 커져가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IIEP/UNESCO (국제교육계획기구/국가연합 교육과학문화협력체)와 공동으로 개최한 “평생학습의 실현 (Making Lifelong Learning a Reality)”에 대한 국제세미나에서는 지식정보사회의 발달로 갈수록 중요성이 부각되는 평생학습 정책에 대하여 참가국들의 동향과 추세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IIEP/UNESCO 교육 분야의 주요 담당자, 평생학습 관련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평생학습정책 담당자들, 석학들과 연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국의 경험과 정보 그리고 지식을 공유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 행사를 통하여 한국이 참가국들에게 평생학습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고, 또한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한국의 평생학습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평생학습의 실현”이라는 프로젝트를 2002년 초부터 진행하여 2003년 6월에 정책 세미나로 결실을 거두기까지 협동작업을 한 IIEP/UNESCO의 David Atchoarena 박사와 일본과 호주 등 각 국의 참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IIEP/UNESCO 측과 협의를 통하여 국제 세미나를 기획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까지 많은 성과를 거두기까지 빈틈없는 준비와 진행에 열과 성을 다해준 평생직업교육

연구실 정지선 박사와 김승연 선생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그 외에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은미 학생과 이승재 학생, 세미나 기간에 협조해 준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윤주, 변수용, 이현우 학생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최민성 학생, 그리고 국제협력팀의 노고에도 감사를 표한다.

2003년 9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院長 金 章 鎬

목 차

머 리 말

I. 국제 세미나 개요	1
1. 행사 개요	1
2. 국제학술대회 배경 및 목적	2
3.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6
II. 세션별 주제 및 내용 요약	7
1. Session of Theme 1 : 평생학습: 국제적 차원의 정책적 대응	7
2. Session of Theme 2 : 평생학습과 자격제도의 중요성	13
3. Session of Theme 3 : 평생학습을 위한 재정 지원	18
4. Session of Theme 4 : 선행학습의 인정	23
5. Session of Theme 5 : 고등교육기관에서 평생학습의 쟁점	26
6. Session of Theme 6 : 교육개혁과 평생학습	32
III. 세미나를 통한 주요 논의 사항	36
1. 자격제도와 학습경로	39
2. 학점인정 및 평생학습과 교육정책	40
3. 평생학습을 위한 재정지원	41
별 첨	43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강무섭 원장 개회사	45
2.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윤덕홍 장관 환영사	51
3. UNESCO/UNEVOC Rupert Maclean 소장 환영사	54

4. 대진대학교 총장 겸 한국평생교육학회 홍기형 회장 기조연설문	59
5. PROGRAM	75
6. STUDY - VISIT	79
7. 보도기사 및 자료	83
8. 참가자 명단	90
9. 주요 오찬 및 만찬	96

I . 국제 세미나 개요

1. 행사 개요

A. 회의명 : IIEP/UNESCO-KRIVET 국제 세미나 “평생학습의 실현”

(IIEP/UNESCO-KRIVET International Seminar "Making Lifelong Learning a Reality : Emerging Patterns in Europe and Asia, Challenges and Prospects for Medium Income Countries")

B. 행사기간 : 2003년 6월 24일(화) ~ 26일(목)

C. 장 소 : Renaissance Seoul Hotel, Diamond Ballroom

D. 주제 : “평생학습의 실현”

- 제 1 주제 : 평생학습: 국제적 차원의 정책적 대응
- 제 2 주제 : 평생학습과 자격제도의 중요성
- 제 3 주제 : 평생학습을 위한 재정 지원
- 제 4 주제 : 선행학습의 인정
- 제 5 주제 : 고등교육기관에서 평생학습의 쟁점
- 제 6 주제 : 교육개혁과 평생학습

E. 주 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IIEP/UNESCO 공동주최

F. 참가자격 : UNESCO 회원국 대표로 평생학습 정책 관련자
또는 전공자 등

G. 참가자 : 총 약 90여명

- 1) 21 개국, 90명
- 2) 국제기구 : World Bank 및 UNESCO regional office 4개
기구에서 12명
- 3) staffs 12 명
- 4) 국내 참가자 약 50 명

H. 공식언어 : 영어 (영한 ↔ 한영 동시통역)

I. 국제 세미나 준비팀

행사 책임자 : 정 지 선

공동 연구진 : 김 승 연

2. 국제학술대회 배경 및 목적

A. 배 경

- UNESCO의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ducational Planning (IIEP)에서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평생교육 정책 수립에 지침을 마련하고자 “평생학습의 실현 : 유럽과 아시아의 최근 동향, 개발도상국에서의 도전과 전망” (Making Lifelong a Reality

: Emerging Patterns in Europe and Asia, Challenges and Prospects for Medium Income Countries)이라는 project를 제안하여 추진하여 왔음.

-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선진국인 한국, 호주, 일본의 파트너십으로 IIEP/UNESCO와 주도적으로 개발도상국들에게 평생교육 정책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연구물을 산출하자는 취지임.
- 이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하여 2002년 3월에 Paris의 IIEP 본부에서 각 참가국 대표들이 참가하는 workshop을 개최하여 project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2002년 9월에는 중간 workshop을 일본의 NIER에서 개최하여 각 국의 국가보고서 중간보고를 하면서 전체적인 연구의 방향을 조율함.
- 두 차례의 workshop에서 논의된 결과는 <표 I-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2003년 6월에는 각국의 정책담당자,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선진국들의 사례들을 공유하고, 동시에 중진국들의 평생학습 정책에 관하여 함께 논의하였음.

〈표 I -1〉 workshop 논의내용

workshop	논의내용	참가
제1차 (2002. 3.) IIEP, Par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ject "Making Lifelong Learning a Reality"의 전체적인 방향검토 및 추진계획 논의 - 선진국 : 각 국의 평생학습 정책의 우수 사례를 국가보고 서로 작성하여 개발도상국의 평생학습 정책수립에 시사점을 주고자 함. - 개발도상국 : 국가의 평생학습 정책에 관하여 발표하여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함. ○ 중간 workshop 개최 장소 등 논의 	IIEP, 한국의 9개국
제2차 (2002. 9.) NIER, Toky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국 보고서의 중간보고를 통하여 주제별로 연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함으로써 project의 방향을 재검토함. ○ 최종정책세미나 개최 관련 내용 논의 	

B. 필요성

- 세계적으로 평생학습의 교육계획과 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며, 세계화의 맥락 (경쟁력 제고의 압력, 공공투자의 강제력 증대, 공공부문의 축소, 노동시장과 고용 형태 심층적 변화, 교육의 질에 관한 우려 증대,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고령화 국가 수의 증가 추세)에서 평생학습 정책에 많은 개혁을 시도하였음.
- 또한 아시아의 경제 위기는 노동시장과 개발 전략에 혹독한 시련을 초래하였고, 그 영향은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평생학습 정책은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하고 있다. 전통적 교육제도는 개방성과 유연성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 수요'에 대한 접근에서 벗어나 '개인의 수요'에 부응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평생학습은 충분히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평생학습의 수요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기술력 부족과 경쟁력 제고 등의 경제적 요인, 취약계층의 사회적 소외 극복, 불평등의 경감, 시민의 개념의 변화 필요, 적극적인 의미의 민주주의 구현, 세계화에 부응하기 위한 개개인의 요구 등과 같은 사회의 본질적 이유들로 인해 성인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들은 교육과 훈련의 재조직이라는 매우 비중 있는 과제를 공공부문에 던져 주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의 선진사회는 평생학습을 실현하기 위해 신속하고 심오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 (EU) 내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국가 차원의 개혁을 고취하는 유럽 위원회 (EC)에 의해 발의되어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개발도상국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초 문해 교육이 어느 정도 달성되고 나면, 평생학습 이행을 촉진하는 초기 교육 (initial education)과 성인학습의 공식적 연계가 활성화되고 있다. 더욱이, 개발도상국이 세계경제 대열에 참여하기 위하여 경제적 사회적 변혁을 시도하는 데에 성인학습의 발전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은 널리 공감되는 바임.

C. 목 적

- 본 원은 UNESCO Regional Center로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UNESCO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중진국들에게 평생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평생학습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모범 사례들을 공유하고 각 국의 상황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국제세미나를 IIEP/UNESCO와 함께 개최하였음.

- 첫째, UNESCO 회원국들 간의 평생학습에 대한 공동의 관심사와 상호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 및 협력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고, 평생학습의 향후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둘째, 평생학습 정책에 관한 국제 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한국 평생학습과 UNESCO 회원국들의 우수 사례에 관한 비교 연구를 통하여 향후 평생학습 정책의 방향 제시에 참고자료로 삼고자 함.
- 셋째, 아·태지역 중진국들의 평생학습 정책의 방향에 관하여 논의함으로써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방향 제시에 일조하고자 함.
- 넷째,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UNESCO Regional Center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회원국들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3.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평생학습정책 등에 관한 우수 사례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각국의 정책 입안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 UNESCO Regional Center로서의 본원의 평생학습 분야 지도력을 강화함.
- 해외와 국내 모범 사례를 발굴·보급함으로써 UNESCO 국가들의 평생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해당 국가와의 Network 강화 계기를 마련함.
- 직업교육훈련 분야를 포함한 평생학습 분야의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반 조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II. 세션별 주제 및 내용 요약

1. Session of Theme 1 :

“평생학습: 국제적 차원의 정책적 대응”

말레이시아에서의 평생학습

Mohamed Rashid Navi Bax

(말레이시아 교육부 기술교육국장)

Mohd Nasir Abu Hassan

(말레이시아 교육부 기술교육과장)

말레이시아의 특수성은 다양한 문화의 혼합성이기 때문에, 교육 훈련 정책의 주요 목표가 국민적 통일성과 개인적 도덕성의 향상을 도모해 왔다. 따라서 학교교육은 다른 부문보다도 더욱 강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국가적 차원의 교육훈련의 총체적 흐름에 대한 통합으로서 평생학습이 현재와 미래에는 핵심 단계가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오고 있다.

이제까지, 형식적 학습은 정책 수립의 중요한 대상이 되어왔다. 학

습이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도록 하는 데에 핵심요소로 작용하며, 또한 교육과 훈련의 제공 방법을 형성해 왔다. 비록 말레이시아에서 평생학습의 요소들이 명백히 드러난다고 해도, 학습사회를 추구하는 변화의 물결이 거세어 지면서 학습에 대한 총체적 인식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대대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또 하나 복합적인 요인은 평생학습 그 자체의 복합적인 개념적 속성이다. 말레이시아에서 학습문화를 형성하고 인식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평생학습을 구성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말레이시아에서 평생학습 정책들, 교육과 훈련의 경로들, 제도들과 실태들을 개관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시도로 5개년 개발 계획과 10개년 추진 전략들이 시행되었다. 정부는 다양한 대행기관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평생학습을 고무하고 증진하고 있다. 다양한 다수의 유사하고 상이한 평생학습 정책들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는 행위자들이 있다. 이러한 현상들로 인하여 자원의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평생학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많은 장애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발전하는 사회에서 인식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으며, 동시에 행정부와 기타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조정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말레이시아만의 자격 틀이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평생학습은 상당한 규모로 증진될 것이며 그 개념은 확산되어 평생학습이 말레이시아에도 성공적으로 이식되어 성장할 것으로 믿는다.

중국에서의 평생학습

Han Min (국립교육 개발 연구원, 교수, 중국)

중국은 부국 강병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020년까지의 20년 동안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개선하고, 공업화로의 경제적 구조 조정을 추진하며, 근대화를 가속시키고, 국민들이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려 하고 있다. 중국은 부국강병의 목표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농촌노동력의 이동과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제성장형태의 변화 ▲고용에 대한 압력의 증가 ▲세계화와 도전 ▲직업세계의 변화 ▲지역간 인구집단간 개발의 불균형으로 대표되는 급변하는 중국사회는 평생학습이 해결하여야 할 많은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이러한 도전에 비추어 중국정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과제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첫째, 중국에서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성인의 비율을 높이려 하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연간 30시간 이상 훈련에 참여하는 성인의 비율은 14%에 불과하며 특히 실업자, 저학력, 저기능자, 빈곤자, 여성 등을 위한 학습기회는 매우 낮은 편이다.

둘째, 성인학습을 위한 새로운 재정제도를 형성하려 한다. 중국의 성인인구수가 매우 많음에 비하여 성인교육을 위한 재정의 부족은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형평성있는 교육비용 공유체제를 만들기 위하여 새로운 성인 학습을 위한 재정 시스템을 건설하여야 한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고용주, 성인학습자 등이 성인학습 비용을 공유하여야 하며 사회의 각각 다른 분야로부터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교육에 더 많은 재정이 투자되도록 하고 더 많은 공

공자금이 성인교육에 투자되도록 하여야 한다. 2005년까지 GDP의 4%를 교육에 투자되도록 하며 전체 교육예산의 5%가 성인교육에 투자되도록 할 것이다.

성인학습에 대한 재정비율의 정도가 학습자 모임이나 단체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취약그룹에 대한 재정지원이 평생학습을 증대시키는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학습 voucher 제도가 취약한 학습자를 위하여 개발되어야 하며 교육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는 권장되어야 하며 기존의 학교와 현존하는 학습자원을 성인학습자에게 개방하는 것도 강조하여야 한다.

셋째, 성인교육의 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성인교육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별기관이나 기업이 성인교육에 참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권장되어야 한다.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교육훈련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야 하고 필요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밖에 지방정부와 각종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여진다. 성인교육기관의 교육방법이 기존의 학력위주에서 능력위주로 변환되고, 새로운 교육과정과 학습방법을 개발하며,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교육방법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실천적인 실습과 능력함양을 통하여 더 많은 것을 배울수 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평생학습체제를 개편한다. 중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교육제도와 학습인구를 가지고 있으나 현존 체제에서는 기존의 학교교육과 성인교육, 다양한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사이에서 통합과 연계가 미흡한 편이다. 평생학습이 실현되자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학습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기존의 정교학교교육제도와 성인교육제도의 외에 지방정부에 의한 교육과 고용주에 의한 직업훈련이 체제내에 포함되어야 하겠다. 이 교육제도를 통하여 모든 교육기관과 학습자들이

네트워킹을 통해 자원을 공유하여야 하며 학습자들은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욕구에 따라 스스로 학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에 대한 접근이 더욱 용이하여야 하며, 서로 다른 교육기관들 사이에 학습전이가 더 쉬어져야 할 것이다. 다양한 학교와 프로그램의 결과가 서로 인식되도록 새로운 형태의 학습시스템이 형성되어야 한다.

평생학습 : World Bank의 관점

김광조 (World Bank, 선임교육전문원)

지식기반경제의 특성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면, 우선 지식경제의 추세는 급속하고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속성을 가졌다. 또한 자본의 세계적 차원의 이동이 용이하다. 세계적으로 무역조약의 기능이 강화되어 지고 있으며, 재화와 용역의 질이 가격만큼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직장 단위로 조직적 변화가 생겨난다. 경쟁이 심한 부문에서 단기 취업기간이 감축되어가고 있다. 지식기반경제는 거시적 안정감, 개방성, 경쟁, 그리고 충분한 재정지원 등을 기초로 발전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회에서 평생학습 체제는 신기술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학습의 경로들을 다양화하며, 이에 대한 관할제도와 재정지원에 대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몇 가지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학습자의 수요와 유인책을 중심으로 평생학습체제를 재조정해야 한다. 둘째, 핵심 기술의 내용, 교육방법 그리고 인정체제를 변화 발전시킴으로써 평생학습의 질을 향상시킨다. 셋째, 적절하고, 충분하고, 지속적이고, 시장 중심의 재정지원기제를 다양화해야 한다. 넷째, 평생학습은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기반으로 하여 범부처 차원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2. Session of Theme 2 :

“평생학습과 자격제도의 중요성”

평생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호주의 평생학습제도

John Stanwick

(국립 직업교육연구원, NCVER, 선임연구원, 호주)

평생학습은 최근 교육정책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유네스코나 OECD 등 국제기구 등의 교육정책에서도 평생학습이 화두가 되고 있다. 평생학습이 이처럼 국제적으로 핵심적인 정책목표중의 하나가 된 이면에는 경제적인 성장, 그리고 급속한 기술 변화와 함께 사회적 통합과 취업능력제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이 그 주요 이유로 볼 수 있다.

호주의 평생학습의 경우, 근로자의 기술의 숙련과 취업능력 제고라는데 그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호주의 평생학습제도의 중점은 학생들이 교육제도 내에서 그리고 교육으로부터 노동시장으로 순조롭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다. 호주의 교육훈련제도는 다양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특히 직업교육훈련(VET) 영역으로 볼 수 있다. 호주의 직업교육훈련 영역은 학교교육을 이수한 후, 또는 학교교육을 이수하는 동안에 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도제제도나 훈련생제도 등을 통해 피고용자의 형태로도 이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호주의 직업교육훈련(VET)제도의 특수성

은 이수자에게 졸업증, 자격증, 학위 등 국가 전체에서 통용되는 여러 가지의 자격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호주의 직업교육훈련 영역에서 제공되는 자격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호주의 자격제도(Australian Qualification Framework:AQF)와 국가 훈련제도(National Training Framework:NTF)로서 이 논문은 호주가 호주 국민의 능력개발과 다양한 학습경로의 개척을 위해 도입한 이 두 가지 제도에 관해 주로 설명하고 있다.

먼저 호주의 자격제도(AQF)는 의무교육이수 후 과정에서 발급되는 모든 자격에 대한 총칭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고등학교졸업증부터 박사학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자격들이 포함된다. 이 제도는 1995년에 처음 소개되었으며 그 목적은 교육과 훈련에서 얻어진 성과들에 대해 일관성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즉 다시 말해 교육분야의 자격과 훈련분야의 자격간에 호환성을 증가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 제도는 또한 선행학습의 인정에 대한 기초를 부여해 주며, 교육과 훈련 중등교육, 직업교육훈련, 고등교육 등 다양한 영역들간에 이동 가능한 경로를 확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호주의 국가훈련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호주질훈련제도와 훈련패키지이다. 먼저 호주질훈련제도(Australian Quality Training Framework)로서 2002년 7월부터 완전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 제도는 그전에 있던 호주인증제(Australian Recognition Framework)를 대체한 것이며 그 전에 있던 호주인증제 역시 1998년 도입되어 호주의 훈련기관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훈련기관을 등록시켜 질 보장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호주인증제 이전의 제도는 훈련기관에 자격을 부여하기보다는 훈련과정에 자격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새로 도입된 호주질훈련제도는 그전의 호주인증제(ARF)에 이어 등록된 훈련기관(RTO)이 되기 위한 기준을 높이

는 동시에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 및 지방별로 훈련기관 또는 과정을 인증하는 단체들에게 인증을 위한 합의된 과정과 기준을 제공해 준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호주 국가훈련제도의 근간이 되는 훈련패키지(Training Packages)는 산업체가 주도하여 훈련기관과 협력하여 만들어내는 것으로서 그에 따라 훈련을 받고 자격을 얻을 경우 전국적으로 통용이 된다. 이 훈련패키지의 경우 산학 협력을 촉진시키고 일터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직업능력을 습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성과중심(competency-based)에 기초한 제도로서 보다 폭넓은 능력과 소양을 길러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 논문은 전체적으로 호주에서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호주훈련제도(AQF)와 국가훈련제도(NTF)를 소개하였다. 특히 이 제도들의 특징이 효율적인 학습경로를 제공하고 서로 다른 교육부문간의 연계를 구성하기 위한 것임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 같은 제도하에서 과정보다는 성과에 중심을 둔 훈련패키지 제도가 같은 제한점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호주의 평생학습제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로서 도입된 호주의 자격제도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서로 다른 교육영역간, 특히 고등교육분야와 직업교육훈련분야간에 호환성 있는 자격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교육부문간의 연계를 구성하고자 한 것이다. 즉 학교를 떠난 후 그리고 학교교육 이수 중에 받은 모든 종류의 교육과 훈련에 대해 일종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학습자의 교육경로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매끄러운(seamless) 교육경로를 형성하여 평생학습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새로운 호주의 자격제도의 목적으로 볼 수 있다.

평생학습의 실현: 타이랜드의 사례

Prasert Nonpala

(타이랜드 교육부 직업교육국 자문관)

제8차 국가교육발전계획 (1997-2001)에는 귀족주의 타이랜드 정부가 심사숙고하는 5개의 주요 교육 이슈들이 있다. 그 중의 하나는 “평생학습 활동의 확대”이다. 정부는 평생학습을 기초 기술을 재교육하는 것과 더욱 전문화된 수준의 학습을 위한 “두 번째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형식적 교육제도가 더욱 개방되어야 하고 유연하게 기능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게 됨으로써 실제 학습자들 그리고 잠재적 학습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학습 기회들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교육, 종교, 문화부 (MERC)의 1999년 국민교육법으로 행정 조직개편 후에 공교육 행정과 경영이 지방 조직과 교육기관으로 분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형식적 교육 부문은 교육의 목적, 양상, 관리절차, 기간, 평가와 측정 등을 결정하는 데에 융통성이 있는 편이다. 비형식적 교육의 내용과 교육과정들도 학습자 개개인의 수요와 요구에 부응하면서 적절하게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 평생학습은 학령 전 아동의 비형식적 교육, 기초 문자해득 교육,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삶의 질 향상 교육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무형식적 교육은 각자의 관심, 잠재력, 학습에 대한 준비도와 성숙도 그리고 개인, 사회, 환경, 매체, 그리고 기타 지식의 원천으로부터 생겨나는 기회들에 따라서 학습자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된다.

향후 평생학습의 발전 방향을 논의해 보면, 우선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의 목적은 생활의 질적 향상을 추구해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이

러한 관점에서, 직업교육국은 타이랜드 시민과 사회, 그리고 경제를 평생학습의 발전에 핵심이 되도록 하는 책임을 가진 주요 부서이다. 직업교육국은 차세기의 선진국은 학습사회를 실현하는 사회가 될 것인바, 이러한 발전은 평생직업교육훈련의 발전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3. Session of Theme 3 :

“평생학습을 위한 재정지원”

평생학습을 위한 재정지원

David Atchoarena

(IIEP/UNESCO 프로그램 전문원)

많은 사람들이 평생학습의 증진과 발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동의
를 한다. 그러나 평생학습의 발전을 위하여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이고,
그 비용이 어디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충당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평생학습 비용 부담의 주체가 누구이며, 평생학습의 재정지
원을 위한 기재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특별히 공공재정을 사용의 최
선의 방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여러 나라에서 실시해 온 다양한 시도와 축적된 경험에도 불구하고
고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 아직도 평생학습의 전 단계인 초기교육을 우선시해야만 할 것인가?
- 공공재정이 빈곤하고, 고용주들이 지원에 동참하는 것을 거부하
고, 위기에 처한 개개인 학습자들의 역량이 부족할 때에는 취약
계층을 위한 평생학습은 어떻게 지원되어야 할 것인가?
- 그러한 위험이 새로운 사회보장의 형태로 카바될 수 있는가?

- 집단적 책임과 개인적 책임 간에는 어떻게 균형이 잡혀야 하는가?
- 평생학습의 재정지원은 시민권이라는 범위로 통합되어질 수 있는가?

지식경제의 출현과 노령화 사회의 대두로 인한 새로운 노동시장의 질서는 개인의 생활 주기의 구성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새로운 생활 유형이란 상이한 시기에 다양한 유형으로 학습, 일, 여가를 즐기고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는 고용정책과 평생학습의 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체제를 구축해 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취업의 혜택이 사용자 중심이 아닌 개인 중심으로 가야 한다. 소득도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임시적 안전망 구축 차원의 지원으로만 그치지 말고, 학습 그 자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국가가 경제적 사회적 새로운 변화와 문제들에 직면한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는 비록 공공부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민간부문에서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과 유형은 국가마다 특수한 환경에 따라서, 국가의 규제적 역할에 대한 인식과 기능이 달라지므로, 다양하게 전개될 것이다.

때로는 경쟁적이고 유연하고 개방된 경제가 불안정한 사회와 개인들과 통합될 때에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 성과와 노동시장 규제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개인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면 사회적 분열과 불만이 정치적으로 표출될 것이다.

개인학습계좌제도 : 영국 사례의 시사점

Michael Fletcher

(학습과 기술 개발원 연구실장, LSDA, 영국)

개인학습계좌는 1997년 5월 노동당이 집권하면 1백만 개의 개인학습계좌를 개설하고, 개인학습계좌 개설자들에게 공공자금 1억 5천만 파운드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시작되고 시범사업을 거쳐 2000년 9월부터 잉글랜드 전역에서 개인학습계좌 사업 실시되었으나 2001년 11월 사업 종료되었다. 개인학습계좌 사업의 목표는 ▲일반 성인의 학습 제고 ▲취약계층 (자격증 미보유자 등)의 학습 제고 ▲개인의 학습에 대한 투자 제고 ▲교육훈련기관이 아니라 학습자들을 통하여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개인학습계좌를 가진 사람들은 계좌번호나 계좌카드를 이용해서 등록된 교육훈련기관의 과정을 등록한다. 이후 교육훈련기관들은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정부에 신청하게 된다. 각 계좌는 개인이 25파운드를 내게 되며, 정부로부터 인정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150파운드를 지원 받게 된다. 인정된 프로그램에서는 취미활동과 관련된 과정 예를 들어 스키나 다이빙 과정은 제외된다. 150파운드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초기 1백만 계좌 가입자에게 적용되었고, 이후 가입자는 과정 당 20% 할인, IT나 수학관련 과정 80% 할인의 혜택을 받아서 개인 당 약 200파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행정처리는 교육기술부를 대표하여 Capita라는 민간기구가 담당하였다. 개인뿐만 아니라 학습공급자도 Capita에 등록하였다. 그러므로 Capita는 질 관리보다는 오직 행정처리만 담당할 수 있었다.

등록된 교육훈련기관은 개인학습계좌 사업종료시점에는 8,910개에 달하였다.

개인학습계좌 개설자의 50%미만이 개인학습계좌를 이용하였는데 대부분이 자격증을 보유한 자였다. 개인학습계좌 이용자의 84%가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가졌고, 39%가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였다. 그러므로 사중손실(deadweight)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2001년 여름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이들 이용자의 54%는 개인학습계좌가 없다고 하더라도 학습에 자금을 투자했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개인학습계좌의 성공적 측면은 1년만에 260만개의 계좌가 개설되었고, 그 중 100만개는 8개월만에 달성되었으며,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는 점이다. 교육훈련기관도 이 체계에 만족하였는데 이는 그사이 복잡하게 실시되어 왔던 자산심사(means testing) 없이도 개인학습계좌를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실패한 측면은 첫째, 행정처리에 문제가 많아서 사기의 가능성이 많았다.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불만이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결국에는 80개 교육훈련기관이 경찰에서 수사되기 시작하였다. 제일 많은 사기행위는 개인들이 모르는 청구사항이 발생하거나 가공의 계좌가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2001년 가을 5,732 명의 개인들이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 금액이 청구되었다는 불만을 제기하였다. 이는 데이터베이스의 문제, 보안성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교육훈련기관은 한번 등록하면 모든 이용자들의 계좌와 남은 지원금에 대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육훈련기관은 계좌번호도 개설하여 번호까지도 만들어내곤 하였다. 물론 개인 이용자들의 사기도 발견되었고, 교육훈련기관은 과정할인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학습비를 높였다. 또한 질관리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둘째, 더 심각한 문제는 사중손실의 문제였다. 이용자들의 대부분

은 개인학습계좌가 없어도 학습에 투자할 사람들이었다.

셋째,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정책과 실행의 차이였다. 이미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공립칼리지(public college)에서 100% 면제된 과정을 이수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학습계좌의 할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넷째, 가장 문제로 지적된 것은 과연 개인학습계좌의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주요 시사점은 ①분명한 사업의 우선 목표가 있어야 한다. 일반성인의 학습을 제고할 것인지 취약계층의 학습을 제고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 ②관련 이해자간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해야 장기간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③ 교육훈련기관이 아니라 학습자에 대한 권리부여가 시도되었지만 실제로는 훈련시장이 확대되었고,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비호의적인 증거는 없었다. ④전국적인 차원의 확대는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⑤적절한 예산집행과 재정적 질 관리가 가능하도록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모색되어야 한다. ⑥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질 관리가 필요하다. ⑦학습비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⑧사기행위를 막을 수 있는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⑨다른 평생학습 관련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⑩사중 손실을 최대한 없애야 한다. ⑪잉글랜드에서는 실제로 금융기관이 개입하여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였다. 금융기관들은 이들 계좌를 관리하는 운영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을 개입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⑬개인의 학습투자를 증가시켰다는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4. Session of Theme 4 : “선행학습의 인정”

프랑스에서 경험학습의 인정에 대한 개혁

Chantal Labuyere,
(학습 자격 연구원, CEREQ,
직업과 훈련 실장, 프랑스)

프랑스에서 1971년에 계속교육훈련법을 제정한 후 30년 간 학령기 졸업생들을 제외하고,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 졸업장을 취득한 성인의 수는 미미한 형편이다.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하면, 1백만 개의 졸업장 중에서, 15%인 15만개의 졸업장만이 계속교육훈련을 통하여 수여되었다. 법 제정을 통한 학습의 인정에 대한 개혁 현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A. 피고용 성인들이 졸업장 취득이 힘든 실정이다.

기업체의 계속교육훈련은 재교육훈련을 위한 단기 훈련과정에 집중되고 있으며, 재정적인 투자 면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학력보충과정을 위하여 유급훈련휴가를 택하는 성인근로자들의 수는 연간 3만 명 정도에 불과하여 성인직업교육훈련이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업자를 노동시장으로 불러들이고자 하는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업자의 고용 증가를 위한 실업자 혜택제도

에 정책적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직장 경력을 통하여 획득된 기술들은 “기술 포트폴리오 (skills portfolios)” 와 같은 실증적 방법을 통하여 인정된다.

고등교육으로 유인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Arts and Metiers 센터의 경우 바칼로레아 2년 과정으로부터 공학 학위과정에 이르기까지 입학에 규제 없이 야간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2000년에는, 1백 5십만 명의 학생 중에서 10만 명 이하의 성인학습자들이 훈련과정에 등록하였다.

B. 1992년 전문직 경력 인정법 (VAP) 제정으로, 학력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시도되었다.

1992년 법제정의 목적은 비공식훈련인 작업현장에서 습득되는 기술자격을 인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사내에서 혹은 자발적 전직을 통한 개개인의 경력의 발달을 고무하기 위하여 또한 실업에 대비한 노동시장에서의 기회 증진을 위한 것이다.

프랑스에는 학력과 자격간에 강한 연계가 있어왔으며, 기본적으로 이러한 학력인정 절차가 개선되어 나가야 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학력으로 인정되는 유형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5년 간의 직업 경력이 있으면, 근로자들은 소지하고 있는 자격과 가장 가까운 학력에 해당하는 학점으로 인정받는다. 이러한 학력인정 적용의 조건으로 학력 취득 희망자는 희망하는 학력을 선택하여 심사 신청서를 교직원 위원회에 제출한다. 2000년에도 이러한 인정과정 신청자는 많지 않았다. 직업교육 분야의 졸업장이 불과 4,600명에 지나지 않는 수에 수여되었고, 고등교육으로는 2,050명에 불과하였다. 프랑스 교육제도에서 경험학습은 훈련을 통하여 얻은 과학적 기술적 지식을 보완하는 유용한

노하우로서 간주되며, 자격증과 훈련과정 간의 구별이 없는 셈이다.

직업교육훈련부문은 대학교보다 전문직 경력을 인정하는 데에 더욱 적극적이다. 직업교육훈련부문에서, 모든 검사는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고, 기관이나 교직원의 기능과는 분리되어 있다. 직업교육 졸업장을 만들고 최신화 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된다. 반면에, 대학교 학위는 학생들이 특정 분야 취업과 연계되기가 쉽지 않다. 고등교육 차원에서, 훈련과 학점인정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나, 대학교에서는 특정 훈련 프로그램만이 전문직 경력으로 인정된다.

C. 전문직 경력 인정은 두 가지 차원의 의미를 가진다.

개인은 자기 자신의 경력 발달을 위하여 교육훈련 인정제도를 이용하며, 그리고 기업체는 근로자들의 재교육훈련, 재자격화를 위하여 전문직 경력인정 사업을 운영한다. 즉 자격증을 공식적으로 인증 받기 위하여, 개인은 자신의 자격 인정을 위한 노력을 하며, 기업체는 피고용자들을 위한 비준절차를 운영한다. 기업체가 집단 인증사업을 시작할 때, 각 사업체가 목표로 하는 학업분야의 수료과정을 선택한다.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신청자를 접수한다. 특기할 만한 것은 수료증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 인정 절차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2002년 프랑스는 경험학습의 인정에 대한 새로운 법제정을 통하여 학력에 대한 접근을 더욱 확산시키고자 시도하고 있다. 주요 개혁 내용은 학력인정제도는 모든 유형의 자격증에 적용되며, 전문직 경력뿐이 아니라 더욱 광범위한 경험의 형태도 적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획득한 졸업장은 학력가치를 보유하여 개인의 권리를 증진한다는 점이다.

5. Session of Theme 5 :

“고등교육기관에서 평생학습의 쟁점”

한국 평생교육 정책의 방향과 과제

구관서 (교육인적자원부 평생직업교육국장, 한국)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생애에 걸친 능력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지식이 富와 생산의 핵심요소이며 자원으로 인간 가치 재발견되면서 평생학습을 통한 지식 및 기술집약적 인력양성 체제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있어서도,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평균수명이 늘어나 국가 인적자원 관리의 중심이 장년층과 고령층으로 이동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지식 정보의 급속한 발달로 계층간, 세대간, 학력별 지식격차가 심화되어 계층간 교육격차, 부의 편중, 사회적 결속 약화 등 우려되고 있다.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라 지식과 학습에 대한 새로운 인식 확산되고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비하여 주말을 활용한 성인들의 평생학습 수요 창출 및 수요 관리를 위한 적절한 시설·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의 평생교육상에서의 문제점은 첫째, 평생학습 참여율이 저조하며 낮은 성인문해력을 들 수 있다. 한국 성인(15세 이상) 평생학습참여율은 17.2%(2000, 통계청)로 낮은 편이며, 성인들의

취학률도 저조하며, 25세 이상 성인 인구 중 약 26.6%가 초등졸 이하의 저학력자이다.

둘째, 교육제도간 학생교류의 경직성을 들 수 있다. 정규학교와 비정규학교간, 비정규학교들간의 학생교류가 제한되어 있고, 학력인정교와 학력미인정교의 구분으로 교육지원과 학습결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셋째, 평생학습 결과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미흡하다.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와 일반대학 졸업생과의 차별적 대우가 존재하며 정규대학에서의 편입학 이외에는 학점은행제 학점 등 평생학습결과를 불인정하고 있다.

넷째,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 및 사회적 인식의 부족을 들 수 있다. 평생교육 수요는 급속히 증가됨에도 재정 지원은 미약하며 방송고, 방송대,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졸업생들의 사회적 기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 등으로 사회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을 고려하여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 가능한 평생학습 사회 건설에 정책목표를 두고 개인에게는 삶의 질 향상시키고 자아 실현을 이룩하게 하며, 국가에게는 지식강국 구현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사회에게는 사회적 통합과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게 한다.

정책방향과 과제로는 먼저 평생학습 기반강화를 위하여 먼저 기반구축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전담지원기구 설치 ▲프로그램 개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평생교육사 양성 ▲유무급 학습휴가제 ▲교육계좌제를 추구하고 평생학습 생활화를 위하여 ▲평생학습 도시·축제 ▲학습동아리를 양성할 계획이다.

둘째, 평생학습 기회확대를 위하여 고등교육기회확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원격대, 방송대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대학부설평

생교육원을, 일터의 학습장화를 위하여 ▲사내대학 ▲교육기관의 산업
위탁생 제도 ▲성인 직업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 소외계층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
인,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교육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방송통
신고 ▲퇴직자 자원봉사 ▲문해교육 ▲민주시민 교육등의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방향하에 함께 참여하는 평생학습사회 기반을 강화하
기 위하여 평생교육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합, 정비하고, 성인들의 다양
한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소외계층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일본 평생학습 정책의 동향과 도전

Hiromi Sasai

(국립교육정책연구소, NIER, 선임연구원)

최근 일본에서는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이 일본 교육개혁에서 매우 중요한 용어가 되어 왔다. 일본의 평생학습에 대한 국가 정책 결정 및 시행상의 특징중의 하나는 평생학습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부처간 조정과 통합은 물론 중앙집권화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보고서의 전반부(Part I)에서는 평생학습 정책의 초점이 점차로 변화되고 있으며 평생학습 관련 부처들의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위로부터 아래로의 접근(the top-down approach) 방식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후반부(Part II)에서는 분권화 및 공공 서비스의 민간화와 같은 구조적인 행정개혁과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재정 과정에서 제기 되는 새로운 논쟁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래 새로운 정책 모델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사점도 제시하고 있다.

Part I 평생학습정책과 교육개혁

일본 정부는 1990년대 후반 수평적 통합 및 수직적 통합을 시도한 평생학습체계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문부성과 과학기술청과 통합한 문부과학성으로 개편하였다. 현재 평생학습정책은 문부과학성 이외에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해양농수산성, 국립경찰청, 환경성 등 다양한 부처청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부처들간에 이

루어지는 평생학습정책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부처나 기관의 평생학습 프로젝트는 항상 문부과학성의 평생학습정책과 조정을 통해 발전된 것은 아니어서 현재까지 부처간 정책 프로그램의 중복을 피할 수 없었다. 문부과학성의 주요 역할은 형식 및 비형식교육을 관할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국민의 평생학습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위하여 부처청간 협력해 나가는 것이다. 그동안 부처청의 구조조정을 통해 이같은 협력을 더욱 밀접하게 할 수 있었다.

두 번째 특징은 새로운 정보공학의 보급이 교육정책 내에서만 아니라 통신, 산업, 건강, 레저,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내에서 중요하다. 부처청간 체계적인 조정을 통해 종합적인 접근으로 IT 정책을 보다 순조롭게 진행시켜 왔으며, 정책 추진 속도나 합리화를 더욱 가속화시켜 왔다.

세 번째 특징은 문부과학성이 프랑스나 한국과 같이 노동관련 행정과 교육 행정을 통합한 부처가 아니었다는 사실 때문에 직업교육과 노동과 밀접하게 연계된 교육정책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일본의 평생학습 프로젝트는 학교, 산업체, 지역사회와는 별개로 건강, 레저, 문화, 확대된 교육활동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평생학습 정책들은 학교와 지역사회 및 산업체와 더욱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청소년들을 학교에서 사회로 순조로운 이행을 돕는 데 있다.

Part II 구조적 개혁 시대의 평생학습을 위한 도전과 새로운 정책 탐색

일본 정부는 1990년대 하반기부터 정부 및 관료주의의 근본 구조에 대한 급격한 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이는 평생학습 정책과 프로그

램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같은 행정 및 재정의 주요 개혁을 “구조적 개혁(structural Reform)”으로 부르고 있다.

전통적인 중앙집권형, 수직적이고 획일적인 체제를 분산하고 지역의 의사결정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보장하려는 분권화 개혁은 1980년대 평생학습정책이 도입되었을 때는 풍부했던 정부 지원금에 대한 유인가를 제공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분권화된 사회를 지원하고 정책형성과 지역사회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책임있는 시민의 육성은 지역사회내에서 평생학습을 위한 새로운 쟁점이 되어 오기도 하였다. 이같은 운동은 비영리단체(NPOs)와 같은 시민사회의 건설을 촉구하는 정부 정책에 의해 지지지를 받게 되었다.

일본의 평생학습 정책은 최근에까지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어 왔는데 이는 시교육위원회나 지역사회센터와 같은 소위 공공부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민간 산업체 및 비영리집단과 같은 비정부부문의 집단이 평생학습활동 지원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같은 활동은 평생학습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평생학습계획정책과 관련하여 이같은 비정부부문의 동향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미래의 평생학습 정책의 방향으로 다음 두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2003년 3월 일본 중앙교육심의회는 1947년에 제정된 교육기본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여 평생학습의 개념을 교육의 근본적인 개념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어, 평생학습의 개념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일이다.

둘째, 정보사회에서 지식사회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평생학습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다.

6. Session of Theme 6 : “교육개혁과 평생학습”

지방분권화, 지역참가 자율자치성 : 일본의 교육개혁과 평생학습에의 영향

Yukiko Sawano

(국립교육정책연구소, NIER, 선임연구원)

이 보고서에서는 1970년대 이후의 일본의 평생학습 정책 전개의 역사를 개관함과 동시에 21세기를 맞이하여 도입된 구조조정 안에서의 교육개혁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다. 즉 지방분권화에서 요구되는 지역 의사결정에 시민 참가와 그것을 촉진하는 평생학습의 본연의 자세에 대하여 모색하였다.

일본에서는 1960년대 후반에 유네스코가 제창한 평생교육의 개념이 소개되어 문부성 「중앙교육심의회」의 교육개혁안에서도 평생교육의 개념의 도입에 대하여 제안되게 되었다. 구체적인 평생학습정책은 1980년대의 「임시교육 심의회 답신」에 의해 1988년 이후 도입되었다. 당초 평생교육의 목표는 1) 사회 경제의 변화에의 대응, 2) 고령화와 사회의 발전과 변화에의 대응 및 3) 학력사회의 병폐를 개선하는데 있었다. 그러면서도, 세계화의 영향, 1990년대의 경제위기, 어린이들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 해결과 아동학대의 증가, 전일제 정규 직업을 갖지 않는 ‘프리터 (freeter)’라고 불리는 젊은이들의 증가 등의 사회병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개혁도 방향 전환이 요구되었다. 이 때문에 평생학습의 중점 예산을 고령자 및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의 예산이 삭감되어 학교 이외의 청소년교육과 가정교육자원에 중

점을 두게 되었다. 또 2001년부터 도입된 “21세기 교육신생 플랜”에서도 가정과 지역의 교육력 회복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한편, 고이즈미 내각 (현 정권)이 추진하는 구조조정에서는 지방분권화, 규제완화, 민영화가 키워드가 되어 있다. 분권사회에서는 책임 있는 시민에 의한 새로운 공공의 형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1990년대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학습의 성과를 활용한 도시 건설이 보다 중요시되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신아와지 대지진 이후 법률이 정비되어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NPO)의 활동이 기대되어지고 있다.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연계 하에, 성인도 어린이도 함께 배울 수 있는 학습공동체의 형성이 일본적인 평생학습의 궁극적 목표이며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평생학습의 도전적 과제 : 지식경제적 맥락에서

Carl Dahlman (World Bank, 프로그램 실장)

우리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지식의 증가로 지식의 혁명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인구의 증가, 그리고 소득과 부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세계화와 국제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GDP 증가율은 1980년에 30%이던 것이 2000년에는 50%로 증가하였다.

평생학습제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개인의 일생을 은퇴시까지 관통하는 학습이라고 본다. 즉 학교, 대학교, 특수 훈련기관을 통한 형식적 교육; 직장과 가정 차원의 훈련인 비형식적 훈련; 그리고 가족, 친구, 지역사회 등을 통하여 기술 등을 습득하는 무형식적 훈련 등을 모두 통합하는 개념이라고 본다.

중국에서의 평생학습에서의 주요 도전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들 수 있다. 첫째, 농업경제로부터 급속한 성장과 전환의 부분으로서의 경제적 재구조화 추세이다. 둘째, 실업과 불완전 고용이다. 셋째, WTO로 인한 더욱 왜곡된 재구조화이다. 넷째, 전국민의 학력 수준이 낮다는 점이다. 다섯째, 지역적 교육 격차가 크고 불균형 현상이 강하다는 점이다. 여섯째, 새로운 세계경제가 요구하는 교육기회의 확대와 기술의 전문성이다.

그러나 성적 중심의 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은 아직도 훨씬 발전되어야 할 과제이다. 25세 이상 인구의 학력 수준이 세계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교육재정도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초등학력자와 중학교 졸업자의 노동시장 취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노동력의 질적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성인들의 학습 참여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성인교육기관으로는 농민학교가 가장 등록생이 많고, 그 다음으로 근로자 학교의 순서이다.

중국에서의 평생학습에 주요 이슈로는 첫째, ICT기술을 이용한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기회의 확대를 들 수 있다. 둘째, 직업교육을 통한 자격증과 학점인정에 대한 필요성의 대두이다. 셋째, 이러한 이슈들이 더욱 통합되고 조율되는 형태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World Bank 는 이러한 중국의 평생학습의 발전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III. 세미나를 통한 주요 논의 사항

“평생학습의 실현”이라는 이 국제 세미나는 평생학습정책에 관하여 많은 참가국들이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특히 국제적 차원에서 많은 의견들이 수렴되었다. 정책의 목표들과 현안 간에 갈등과 긴장의 요인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도 논의되었다. 주제 발표 대상 10개국 간에 상당히 다양한 주제들과 내용들이 논의되었는데,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종합 정리가 필요하다.

우선 노동시장 관련 내용들을 요약하고, 학습기회 평등에 대한 논의, 평생학습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사항과 고등교육 부문의 개혁에 관하여 정리하여 제시하고, 재정지원 기제, 정책과 계획, 향후 과제, 새로운 도전, 심화학습과 협동작업을 위한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노동시장 관련 사항

-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평생학습이 필요하다.
- 평생학습과 고용정책의 연계가 필요하다.
- 고등교육을 포함한 모든 학습에서 산학협동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 인구 구조의 관점과도 연결 지어 분석되어야 한다.

학습기회 평등에 대한 논의

- 성인들의 학습 참여가 증가하고 확대된다.

- 학습 기회의 접근과 참여에 대한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불평등을 보완하여야 한다.
- 더욱 효율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평생학습 정책의 우선 순위에 대한 고려사항

- 모든 근로자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한다.
- 조기 학교 탈락자 등 위험집단에도 초점을 두어야 한다.
- 모든 시민들의 보편적 학습권을 보장하는 제도 구축을 목표로 해야 한다.

고등교육 부문의 개혁

- 지식기반사회에 학력추구사회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학문 지향성에 대한 저항도 필요하다.
- 학습기관 자체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평생학습은 고등교육기관의 새로운 시장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 전달 기제가 다양화되어지고 있다.

재정지원 기제

- 평생학습에 대한 투자 수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 평생학습에 대한 투자의 방향이 시장 기제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재정지원 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정책과 계획

-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정책이나 탈중앙집권적 정책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인 전이가 이루어지고 있다.
 - 관리 차원의 관심 요인은 효율성이다.
 - 성인학습과 관련성을 부각시켜야 그 타당성을 기반으로 문맥이 설명되어야 한다.
- 장단기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 노령화와 사회 분열현상 등에 대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 개개인과 직업능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 효율성과 지속성을 추구해야 한다.

향후 과제

- 학습 참여와 투자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정책적 목표와 면밀한 표적이 결여되어 있다.
- 다음과 같은 개념적 문제들이 있다.
 -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 아동과 청소년층에게도 동일한 접근법이 활용될 수 있는가?

새로운 도전

- 사회 구조를 재활성화하고 강화하여야 한다.
- 지역 차원에서의 새로운 유형의 유대결속이 증진되어야 한다.
-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이 강조되어야 한다.
- 학교를 중심으로 학습지역을 창설해야 한다.
- 시민교육을 위한 평생학습의 중요성도 간과되어서는 아니된다.

- 생애주기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교육, 일과 여가 : 이 세가지 요소는 꼭 정해진 순서대로만 진행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심화학습과 협동작업을 위한 가능성 제시

- 평생학습에 대한 공통적 패러다임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정책의 차용이나 도입이 많다.
 - 국가 자격제도
 - 선행학습의 인정
 - 개인학습계좌제도
 - 고등교육의 모형
- 실행과정이 중요하다.
- 수요나 투자 등 평생학습 변혁의 효과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1. 자격제도와 학습경로

- 학교를 떠난 후 그리고 학교교육 이수 중에 받은 모든 종류의 교육과 훈련에 대해 일종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학습자의 교육 경로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매끄러운(seamless) 교육경로를 형성하여 평생학습을 촉진 방안 마련
- 다양한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 공과 발전이 필요함.
- 학력인정제도는 모든 유형의 자격증에 적용되도록 하고, 전문직 경력뿐이 아니라 더욱 광범위한 경험의 형태도 적용 가능하도록

추진되고 있음. 획득한 졸업장은 학력가치를 보유하여 개인의 권리를 증진함.

- 학점인정을 위한 제도의 발전은 자격과의 호환이 가능하도록 학점 인정 방안과 자격제도가 발전해야 할 것임.
- 학점인정의 기준 확립과 학습의 질관리 방안이 병행되어야 평생 학습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음.

2. 학점 인정 및 평생학습과 교육정책

- 최근에 들어서 민간 산업체 및 비영리집단과 같은 민간부문, NGO 등이 평생학습활동 지원에 적극 참여하는 추세임
- 이 같은 활동은 평생학습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평생학습계획정책과 관련하여 이 같은 비정부부문의 동향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평생학습제도를 통하여 모든 교육기관과 학습자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자원을 공유하여야 하며 학습자들은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욕구에 따라 스스로 학습방법을 선택하도록 발전되어야 함.
- 교육기관에 대한 접근이 더욱 용이하여야 하며, 서로 다른 교육기관들 사이에 학습전이가 더욱 용이하여야 함.
- 다양한 학교와 프로그램의 결과가 서로 인식되도록 새로운 형태의 학습시스템이 형성되어야함.

3. 평생학습을 위한 재정 지원

- 여러 나라에서 실시해 온 다양한 시도와 축적된 경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깊은 고려가 필요함: 평생학습의 비중과 초기교육의 비중을 재고해야 함; 공공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동 부담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새로운 사회보장의 형태로의 발전 가능성; 사회와 개인의 책임 간의 비율 문제; 평생학습의 재정지원과 시민의 학습권과의 통합 문제.
- 비록 국가가 경제적 사회적 새로운 변화와 문제들에 직면한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과제는 비록 공공부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민간부문에서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변화의 양상과 유형은 국가마다 특수한 환경에 따라서, 국가의 규제적 역할에 대한 인식과 기능이 달라지므로, 다양하게 전개됨.
- 재정지원에는 분명한 사업의 목표가 있어야 함.
- 일반 성인의 학습을 제고할 것인지 취약계층의 학습을 제고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함.
- 관련 이해자 간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해야 장기간의 계획이 차질 없게 진행될 것임.

- 교육훈련기관이 아니라 학습권 부여가 시도되었지만 실제로는 훈련시장이 확대되었고,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비호의적인 증거는 없음.
- 전국적인 확대는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하게 계획되어야 함.
- 적절한 예산 집행과 재정적 질 관리가 가능하도록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모색되어야 함.
-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질 관리가 필요함.
- 학습 비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 재정지원 절차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필요함.
- 다른 평생학습 관련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
- 사중 손실을 최대한 막아야 함
- 영국의 개인학습계좌제 운영이 개인의 학습투자를 증가시켰다는 증거가 없음. 그러므로 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실제로 금융기관이 개입하여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것은 금융기관들은 이들 계좌를 관리하는 운영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임. 그러므로 금융기관을 개입시키는 방안이 필요함.

별첨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강무섭 원장 개회사
2.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윤덕홍 장관 환영사
3. UNESCO/UNEVOC Rupert Maclean 소장 환영사
4. 대진대학교 총장 겸 한국평생교육학회 홍기형 회장
기조연설문
5. PROGRAM
6. STUDY-VISIT
7. 보도기사 및 자료
8. 참가자 명단
9. 주요 오찬 및 만찬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강무섭 원장 개회사

Opening Address by President of KRIVET

(2003. 6. 24)

Assistant Minister,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hung Kee Un,
Delegates from the UNESCO and Member Countries,
Ladies and Gentlemen,

It's a great honor for me to deliver the opening address of the International Policy Seminar on "Making Lifelong Learning a Reality" jointly organized by IIEP/UNESCO and KRIVET, within the framework of the IIEP/NCVER/NIER/KRIVET project on *Making lifelong learning a reality: emerging patterns in Europe and Asia*.

The world, as we all know, is changing at a rapid pace. The globalization process accelerated by the emergence of the new WTO regime and the New Round of trade negotiations is a trend we can neither deny nor reverse. Together with th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these form key engines of change in the new millenium, and are acting as catalysts that further speed up globalization.

Changes are taking place in the economy as well. We talk about the 'new economy', the 'digital economy' or the 'knowledge-based economy', to highlight the emergence of knowledge and technology as vital components of competitiveness. We see the frequent rise and fall of enterprises as well as the transition of the economy from one that is manufacture-oriented to that which is service-oriented. These changing trends have increased competition between corporations and between nations.

The labor market, and within it the human resources management of the enterprise, is caught in this whirlpool of change. As a result, the labor market is becoming more flexible and the importance of outside labor markets is growing. Businesses now prefer outsourcing to in-hous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Moreover, hiring people on short to mid-term contracts is replacing the recruitment of permanent staff as the norm.

A number of futurists, business management scholars and sociologists view these changes as wide-ranging and thus tend to define the current changes as a paradigmatic shift from an industrial to a post-industrial society.

This shift is changing the face of the world of work. In the past, the customary form of employment was for life. Under

the existing conditions, however, this practice is an unrealistic ideal. Therefore, each individual must exert a lifetime effort to develop his or her skills, and thus increase his or her employability.

This suggests that education should shed its traditional paradigm.

Education, until now, was understood as education provided through regular schooling. Adult education, in particular, was treated as synonymous with continuing education related to leisure and cultural refinement.

Education, nowadays, should be more far-reaching, extending beyond the students in school to embrace all, including adults outside of the school system. Similarly, the significance of educational institutions should not be confined to the physical entity that we call "school". And the content of education should focus not only on liberal arts and cultural refinement but also on the development of job skills to enhance employability.

It is true that lifelong learning has more or less been overlooked by policymakers in our governments. Some countries saw adult re-education and re-training as being

synonymous with the development of worker's skills. Consequently, their policies on lifelong learning were made and implemented in separation from their education policies.

In reality, the range of lifelong learning is fairly wide. Policies relating to lifelong learning must be made in conjunction with a more comprehensive education policy. We must recognize that the dichotomous distinction between education and training is no longer valid.

Ladies and Gentlemen,

Korea, no longer in an era of rapid economic growth, is experiencing serious unemployment, especially among university graduates. Some of this highly-educated but unemployed population choose to re-enter junior colleges. The unemployment of people in their forties and above is another problem. Supporting their re-employment or self-employment has become an important policy issue.

Taking this into consideration, re-education and re-training of workers compose the foundation for a key policy infrastructure that will help them to realize their potential and to successfully return to the world of work. The discussion on lifelong learning policies as the key agenda of

the Seminar comes at the right moment in time and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in policy-making.

Korea is at a point where it needs to reconsider its policies for lifelong learning, including education in the university, from a new perspective and come up with appropriate measures. More specifically, Korea's education should break from its traditional realm and reform itself to address the learning needs of the different stages of life.

In order to accommodate these changes, the Korean Government has renamed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addition,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has been accorded the authority as Deputy Prime Minister to coordinate policies with relevance to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e emphasis placed on lifelong learning for all in their different life stages is a global trend not unique to Korea. Many countries have already begun to implement policies that integrate or closely link education and training.

Distinguished guests,

I hope that the Seminar serves as the grounds for building

common understanding and exchanging experiences and knowledge on lifelong learning. I am sure it will reconfirm the importance of lifelong learning with the emergence of a post-industrial society.

Again, I am very thankful that I have had the opportunity to give the opening address. I hope that the outcome of this Seminar will assist the UNESCO in concluding the project *"Making Lifelong Learning a Reality : Emerging patterns in Asia and Europe"*.

Before I finish, I would like to extend a special thanks to IIEP/UNESCO, our partner in organizing this conference for their support in making this possible.

I would also like to express my appreciation to the Assistant Minister, Chung Kee Un,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or accepting our request for a welcome address, despite his busy schedule, on behalf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Finally, I thank the scholars, government officials and specialists from around the world for participating in this Seminar.

Moo-Sub Kang, President, KRIVET

2.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윤덕홍 장관 환영사

Honorable Mr. Moo-Sub Kang, the President of KRIVET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Representatives of participating countries and international
lifelong learning specialists,

It is a great privilege for me to deliver the welcoming
address today at the opening of the 2003 International
Seminar on "Making Lifelong Learning a Reality", held by
IIEP/UNESCO-KRIVET.

I would like to express my heartfelt welcome to the eminent
experts from all over the world gathered here to discuss and
exchange their views on this significant and urgent subject in
the field of lifelong learning. The topic of this seminar is
quite relevant and timely to all of us. Today, in the era of
globalization,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strategies f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has become an urgent need in
every society. I am also strongly convinced that the
discussions at this seminar will greatly contribute toward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national plans for

lifelong learning and the effective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by re-illuminating the relationship connecting education, work and the community as a whole.

In the 21st century, due to rapid technological and social changes, individual and social desire for education can no longer be satisfied with education offered at schools alone. We live in an era when an individual's continuing self-development and ability enhancement beyond the boundary of formal schooling, determine the individual and the nation's competitiveness.

This seminar, therefore, has special significance to policy-makers and lifelong learning institutes in Korea as well as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During the seminar, we will listen to and discuss issues such as: how can we satisfy the ever-increasing individual and social desire for lifelong learning? What factors are crucial to effective lifelong learning policies? And, how can major lifelong learning institutes including higher education ones provide successful lifelong learning?

Considering the expertise and in-depth knowledge of participants and speakers, and the efforts made by those involved in the preparation of the seminar, I do believe that this seminar will be a success.

Taking this opportunity, I would like to express my appreciation of the commitment expressed by Dr. Moo-sub Kang and his staff of KRIVET to ensure the success of the seminar, Dr. David Atchoarena of IIEP/UNESCO, and representatives and specialists from the participating countries, who will be entrusted with carrying the seminar forward.

I sincerely hope that this seminar will help promote friendship and cooperation among the representatives present from many different countries and the seminar participants themselves.

June 24, 2003

**By Duck-Hong Yun, Deputy Prime Minister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3. UNESCO/UNEVOC Rupert Maclean 소장 환영사

Welcome Address by Rupert Maclean, Director of the UNESCO International Centre for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UNESCO-UNEVOC), Bonn, Germany

Ladies and Gentlemen,

It is a great pleasure to address you this morning as part of the Opening Ceremony for this important and timely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ifelong Learning, and how to make this a reality, which is being organised jointly by UNESCO IIEP and KRIVET in Korea.

Lifelong Learning is a priority area for UNESCO with regard to its various Education Programmes, since lifelong learning is part of the Education for All movement, which is the priority of priorities for UNESCO. The Dakar Framework for Action contains six goals, and two of these goals (goals 3 and 6) refer to high quality skills development for youth and adults for employability and effective citizenship. The notion of Lifelong Learning is of crucial importance in this regard,

since it is no longer believed that people can just spend a short period of their lives, when they are young, undertaking an education programme that will adequately equip them to be effective members of the labour force and society, for the rest of their lives. Rather, people need to have opportunities to receiv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to enable them to adapt to and adjust to the changing nature of their particular society and local communities.

In fact, lifelong learning is not something that is new. Since the dawn of history people have needed to engage in learning over the fully span of their lives, in order to adjust to the changed conditions confronting them in their particular society and community. What is new is the fact that there is now formal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lifelong learning, and lifelong learning has become a modern day imperative in order to enable people to cope with rapid and extensive change. This is particularly true with regard to the changing world of work.

Some people see this need to change, and to cope with the challenges of change, as a major concern and as a threat. However, others view this as presenting valuable opportunities for improvement, and so not as a problem at all.

In looking at lifelong learning, I would like to refer briefly to seven key matters that in my view need to be addressed and kept in mind if we are to be able to maximise the opportunities and full potential of lifelong learning. These are:

1. It is important to adopt a **holistic approach** to lifelong learning, and not to try to compartmentalize this notion into various segments. For instance, it is important to consider lifelong learning as part of the Education for All movement, and to consider lifelong learning for both employment and for effective citizenship together, and not separately.
2. The **Delors Report** of 1996, on Learning the Treasure Within, provides a useful conceptual framework for considering lifelong learning. You will remember that the Delors Report, which was the report to UNESCO of the independent International Commission on Education for the Twenty-first Century, identifies four pillars of education: learning to learn; learning to do; learning to live together in peace and harmony; and learning to be. When it comes to lifelong learning, a holistic approach to addressing these four pillars of education needs to be adopted.

3. When thinking about education it is important to think about **education in a lateral**, and creative way. Certainly education is not the same thing as schooling since schooling is but one of many different ways of delivering an education to individuals. Instead of just thinking of education in terms of formal delivery modes, there is also a need to think in terms of non-formal and informal modalities as well.
4. In seeking to achieve effective lifelong learning programmes, it is crucial to think in terms of **partnerships in education**. That is, for synergies to occur various partners such as government, industry, civil society, and the community as a whole need to be brought together in cooperative and collaborative ways with the aim of achieving lifelong learning for all.
5. Although all sections of the community are important when it comes to lifelong learning, it is especially important to consider the special **needs of Youth** in this regard. The reason is that in many of our societies, youth are particularly vulnerable in that they face urgent problems such as unemployment, feelings of alienation, and a multitude of health and social problems which are particularly faced by youth, such as drug-related problems, HIV/AIDS and the like.

6. It is important that more is done to help institutions and individuals **share best and innovative practices** regarding lifelong learning. The reason is that what works in one setting or community may, with some adaptation to take account of local conditions, work very well in a different setting. In other words, it is possible to learn from each others success stories and also from each others disappointments and mistakes. The UNESCO-UNEVOC International Centre can provide assistance in this regard with regard to sharing best and innovative practices through our network of 230 Associate Centres in 156 countries, worldwide; and,
7. In exploring most effective ways to achieve sustainable lifelong learning, it is highly desirable that we **harness the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such as e-learning, which is a cost effective way of taking learning to the workplace, this being cost effective in developing as well as developed countries.

In conclusion, may I reiterate that the topic of this meeting is a very important one, which is of crucial importance to all countries, communities and individuals worldwide, whether they be developed, developing, those in rapid transition or countries in a post conflict situation.

*

*

*

4. 대진대학교 총장 겸 한국평생교육학회 홍기형
회장 기조 연설문

**Lifelong Learning in the Knowledge-based
Society: Issues and Lessons in Korea**

Ki-Hyung Hong, Ph. D.

President of the Korean Society for Lifelong Education &
President of Daejin University

Ladies and Gentlemen!

As the President of the Korean Society for Lifelong Education, I am honored to be speaking at this international seminar co-hosted by KRIVET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and IIEP/UNESCO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ducation Planning) in Seoul. I believe this seminar will set a new milestone in the field of lifelong learning. It is an opportunity for us to share the challenges and prospects faced by Asia and Europe while pursuing the task of "Making Lifelong Learning a Reality". Today's seminar will pave the way for the new silk road of the 21st century

linking Asia and Europe. The Lifelong Learning Summit is a chance for scholars from the nations of Asia and Europe, to gather together and share wisdom in order to make lifelong learning a reality in our time. I give thanks to KRIVET for the opportunity to deliver a keynote speech entitled "Lifelong Learning in Knowledge-based Society: Issues and Lessons in Korea" on such an important occasion as this.

When I first saw the seminar theme Making Lifelong Learning a Reality , I was impressed by the insight of the sponsors in choosing such a topic for discussion. Lifelong learning is still a difficult subject to deal with despite its acknowledgement worldwide as an important policy issue. Lifelong learning is imbued with a certain utopian element. Until only recently, lifelong learning was regarded more as realizable vision than as a wishful thinking. Especially in the late 1960s when lifelong learning was first advocated, it was something of a pipe dream for third world countries. It was an educational ideal espoused by a number of advanced countries rather than an educational formula designed to suit the reality of the developing world. Surely it must have been difficult to broadly apply the term 'Reality' during those years. But today our situation has improved, and we can adopt "Making Lifelong Learning a Reality" as a tangible

framework for our own educational aims. These days, even the notion itself has become somewhat in fashion among learned circles. Now, let me revisit lifelong learning and review its transitional shift from master concept to viable reality. In the course of this revisiting, I hope that we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process in which lifelong learning revived in the mid-1990s and evolved until the point at which it stands today - when we can focus exclusively upon this issue as the topic for a global seminar.

It is well known that international discussion on lifelong learning started in the late 1960s to the early 1970s. Since then, a model of education centered upon single-track schooling "Learning Work Retirement", which formerly held sway in childhood education, has been replaced by a recurrent education model in which educational training is engaged in as a continuous circuit over the course of one's lifetime.

Promoted by UNESCO's motto of 1972, Learning to be, lifelong learning paid more attention to the humanistic ideal of realizing perfect human beings instead of focusing only on employability. However, those countries which weathered the oil shock in 1973 and saw a rapid increase in

unemployment, soon lost interest in lifelong learning and came to be more interested in education for youth employment and retraining of the unemployed. As a result, in the 1980s education and training were directed toward the labor market and based primarily in schools.

Lifelong learning entered its age of renaissance in the 1990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milestones in the pursuit of effecting lifelong learning, I think we should read *Learning The Treasure Within* written by Jacques Delors and published in 1996, followed by *Learning To Be* by Edgar Faure published in 1972. The report by Jacques Delors emphasizes lifelong learning as the major scholastic direction that should be pursued in the 21st century, and suggests four main pillars of learning: Learning to know; Learning to do; Learning to be; Learning to live together. The role of OECD in this process is no less important than that of UNESCO. As a bracing strategy to greet the advent of the Knowledge-based Society, in 1996 OECD scrapped the recurrent education theory - an older model of school education - and declared 'Lifelong Learning for All' as a guiding principle in the broadest sense. UNESCO and OECD thus elevated the notion of lifelong learning onto the international stage, and this time succeeded in its activation.

It was Europe that rekindled the light of lifelong learning along with the advent of the Knowledge Society. The European Community designated the year 1996 as the year of 'Lifelong Learning in Europe' and declared *A Memorandum on Lifelong Learning* in 2000. These measures were implemented because of the conviction that a successful transition to a Knowledge-based Society should be accompanied by the transition to a lifelong learning Society. What is particularly noteworthy here is the balance that was struck between lifelong employability and active citizenship. Two central gears upon which the machinery of lifelong learning depends are the elements of lifelong employability and active citizenship, which, in turn, are powered by the realization of lifelong learning. In addition, currently Europe is proceeding with a National Action Plan to implement the goal of "Making Lifelong Learning a Reality", which is the subject of discussion today.

Unprecedented change has swept the world in the past decades prompt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European countries to revive the idea of lifelong learning. Societies worldwide are in the process of massive growth, as we evolve further away from our shared agrarian roots into an industrial and knowledge-based society. The economy, too, is

being changed from labour-intensive to capital-intensive, and finally on to knowledge and information-intensive. Our very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work is shifting, as the labor force moves from blue collar occupations, to white and finally on to gold. Resources that produce value are also being changed from land to energy to labor, and then again to knowledge. At the same time, the characteristics of war are also being modified in this modern era, turning away from disputes over land to the war for energy, and then on to the war for knowledge. As Peter Drucker said, the standard bearers of society commuted from the gallant knights in the middle ages to the bourgeois class in industrial society, and to the educated knowledge workers in contemporary society.

The revival of lifelong learning was realized with the emergence of a knowledge-based economy based on human capital, i.e., on knowledge acquired by humans. Therefore, HR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rough lifelong learning as well as the issues of 'humans' and 'knowledge' are being emphasized. For a society based on knowledge is impossible to envision without the concomitant realization of a lifelong learning society. The learning economy advocated by OECD was married to the learning society espoused by UNESCO, to give birth to a global revival of lifelong learning

that sprang from Europe. Our international seminar today owes much to this visitation of the concept of the knowledge society. The knowledge society and the learning society are like two sides of the same coin. One cannot be realized without the other.

Ladies and gentlemen!

Now, let me turn to the Korean situation. Korea is one of the countries that has seen the liveliest discussion about a knowledge-based society. Especially in the former government of President Kim Dae-jung, knowledge was a key policy issue. A creative knowledge-based state, knowledge-based economy, knowledge-based society, knowledge management, knowledge workers, the knowledge industry and new intellectuals were the paramount topics of conversation during this era. At that time, the Knowledge-based Society was regarded as a ray of light capable of leading Korea out of the dark tunnel of our foreign exchange crisis.

Korea learned a lot while shifting from an industrial society to a knowledge society. In the process of shifting, however, the economic paradigm still remained that of a labor-intensive,

resource-based economy as in the past. Knowledge is the powerhouse of growth, but our knowledge reserves are decreasing. The life cycle of knowledge is growing ever shorter, and therefore knowledge which is useful today may well be redundant tomorrow, while the human life cycle is conversely being extended. The problem here is that school education tends to adhere to the paradigm of the past. The crisis in foreign exchange reserves that Korea experienced under the IMF regime was not just a crisis in foreign exchange reserves but was one of knowledge reserves as well.

According to current Korean thinking on foreign exchange reserves, it is just as important to secure knowledge reserves as foreign exchange reserves in the knowledge society. In today's society, human and intellectual capital is more important than physical and financial capital. HRD is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lifelong learning, and it should be realized over the course of one's life in a wide variety of fields. Therefore, the knowledge society, lifelong learning society and HRD are in a mutually affective trinity relationship. Now, let me talk about lessons and issues raised in Korea concerning lifelong learning in the knowledge-based society.

First, the construction of a learning society began with an

overall reformation of the educational landscape. Since the mid-1990s, Korea has pursued the visions of 'open education, a lifelong learning society' and 'Edutopia' in order to cope with the nascent knowledge-based society, and to make learning accessible anytime, anywhere and to everybody. Such ideals were the starting point and goal of new Korean education - the equivalent of a learning web and a learning society as advocated by the pioneers of lifelong learning.

Second, the Ministry of Education was expanded and reformed in January 2001 to become the present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us moving the department away from its former focus on school education to encompass the general supervision of national HRD and management. At the same time, the Minister of Education & HRD was promoted to the post of deputy Prime Minister. These changes were aimed at securing effective development and management in the educational sector. A knowledge-based economy is an economy based on intellectual capital and human capital. Around this time 'A Basic Law on HRD' was enacted and has since been enforced to facilitate the plan.

Third, a Lifelong Education Law went into effect in the year of 2000. With the enforcement of this law, lifelong education

as a master concept was changed to lifelong education as a System. Although lifelong education has formerly served a marginal role in regard to school education, it came to achieve the same status as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Organizations such as the Lifelong Education Center in Seoul, regional Lifelong Education Information Centers operating on a civic or provincial level, and local Lifelong Learning Halls were created to assume full responsibility for lifelong learning and to help related educational institutions. In order to increase the rights to lifelong learning and learning choices for each Korean citizen, a legal basis was prepared to introduce and run systems for paid or unpaid study leave system, scholarships, an information bank for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and educational accounts.

Fourth, with the enforcement of the Lifelong Education Law, work places and cyberspace are being transformed into places of learning. These are steps we feel that are essential if we are to meet the need for improved human resources and increase opportunities for high-level education. Wider access to alternative venues of higher education is also being provided. Accordingly, corporate universities and correspondence universities were both launched. Furthermore, a Credit Bank System is now being settled as an alternative lifelong learning system at the stage of higher education. A Credit Bank

system allows the results of various learning experiences both in and out of school to be socially assessed and accredited. Degrees are awarded when certain levels of credits are accumulated.

Fifth, it is important to set a policy on organized supporting system for the social sectors and classes that have been neglected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and implementing lifelong learning. This is another crucial policy area required to facilitate lifelong learning and social integration in Korea. Furthermore which, a general plan for HRD to benefit senior citizens is being prepared to supplement the needs of an aging society.

Sixth,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lected three basic self-governing bodies and invested a total of 6 hundred million dollars 2 hundred million for each self-governing body - to proceed with the 'Support Project to Create Learning Cities and Towns' initiative.

The aim of the project is to activate lifelong learning on a regional level, to facilitate the participation in lifelong learning in municipalities, and activate HRD on regional level.

However, there are many challenges still to be overcome. A knowledge-based society is marked by an increase in the economic value of knowledge, a shortened life cycle of knowledge, an explosive increase in knowledge, and the increasing relative importance of knowledge workers. In order to cope with these changes, HRD should be facilitated throughout the course of one's life by means of the systematization of lifelong learning,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in lifelong learning, localization of lifelong learning, creation of a data base for lifelong learning, and networking among lifelong learning systems as facilitated through the Lifelong Education Law. The task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lifelong employability and active citizenship as the ideals of lifelong learning should be pursued in balance. In Korea, with the arrival of the knowledge-based Society, membership of the OECD, the so-called IMF era, and structural unemployment, HRD for improved economic competitiveness as advocated by OECD has been emphasized more than the educational ideals of UNESCO for individual self-realization. In this respect, education for citizenship and vocational education should be simultaneously pursued, with education for citizenship in civil society and vocational education in the Learning Economy, i.e. education for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formation should be implemented side-by-side.

Second, organizations in charge of lifelong learning should be strengthened substantially. With the enforcement of the Lifelong Education Law, a Lifelong Education Center was established and is now being operated in Seoul, with regional Lifelong Learning Information Centers in 16 cities and provinces, and Lifelong Learning Halls in 225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These institutions are mandated to conduct research on lifelong learning, train the staff of lifelong learning institutes, collect and provide information on lifelong learning, form linkages between various lifelong learning institutions, and develop and run associated programs. However, most of these education centers are existing institutions that have had the additional workload of lifelong learning imposed on them, and are suffering from insufficient support for administrative costs. It is important to support those nominal organizations and foster their growth into more substantial supporting system.

Third, lifelong learning should be more dynamically pursued at a grass-roots level. Regional lifelong education in Korea has seen little activation thus far owing to a centralized educational system, and such a gap must be rectified as

regional communities are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lifelong learning. As the revamped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has been newly launched, so should innovative models of regional Lifelong Educational Information Centers, Lifelong Learning Hall, and Lifelong Educational Councils be developed and provided. Management personnel should be professionalized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and participation of these organizations in municipal affairs should be guaranteed institutionally while taking care not to undermine the expertise and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Fourth, the creation of a new pilot project should be mobiliz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Learning City, Learning Region, and 'Support Project to Create Learning Cities and Towns.' This can promote regional lifelong learning and elevate the existing culture of education to the status of the 2nd Saemaeul (New Village) movement. Festivals to share and celebrate the results of learning should be held on a regional basis, and regional learning association movements should be activated nation-wide. These measures will transform the nature of lifelong learning from one provided by the state to a voluntary movement participated in by the learners. This will be the lifelong learning policy that can promote a learning culture.

Fifth, we need to make work places also learning organizations. Knowledge has become an absolute element in knowledge production; the boundary between work and learning is blurring in the knowledge-based society and learning economy; the controlling authority on education has been shifted from the church (as in the middle ages), to the state in modern times, and to multinational businesses in the post-modern era. Until the mid-1990s, the "School to Work" system functioned as a conduit to provide human resources to businesses. Currently, this system is being transformed to a "Work to Work" model by which businesses can set up in-house educational institutes and develop programs, so as to better promote a form of HRD directly related to corporate competitiveness. In order to establish and run Corporate Universities and transform work places into learning organizations of work, it is necessary to mitigate any excessive educational costs that would otherwise be borne by the owners of the businesses.

Sixth, equalization in the opportunities for lifelong learning is important. It is an ideal of lifelong learning that all members of the state should be provided with equal access and opportunity for learning. Owing to the commercialization of lifelong learning and its concentration in certain urban centers, residents in cities tend to be comparatively overeducated while people in more rural regions remain in a

state of absolute illiteracy. Lifelong learning in Korea has been criticized as pursuing a policy of awarding University Degrees to such an exaggerated point that the Lifelong Education Law is called 'the second law on higher education'. As in other countries in Korea, policy to increase opportunities for adult higher education should be supported by policy to improve the basic functions of such education. Another important task is to acknowledge the existence of an illiterate population in farming and fishing regions and more impoverished city areas, and encourage the involvement of such citizens in the literacy education movement.

Ladies and gentlemen!

Lifelong learning for all still has a long way to go. There is much that remains to be achieved.

I would like to finish my speech by asking you to join me in making every effort towards the realization of equal opportunities for all in the lifelong learning societies of the 21st century.

President of the Korea Society for Lifelong Education,
Ki-Hyung Hong

5. Program

Timetable of the Seminar

	June 24 (TUE)	June 25 (WED)	June 26 (THU)	
08:00				08:00
	Registration			
09:00	Opening Session	Session of Theme 3 Session of Theme 4	Session of Theme 5 Session of Theme 6	10:00
10:00				12:00
11:00				14:00
12:00				16:00
13:00	Luncheon (Provided) Sapphire & Ruby Room 4th fl.	Luncheon	Luncheon (Provided) Topaz Room 4th fl.	18:00
14:00	Session of Theme 1 Session of Theme 2	Study Vist (Hoseo Computer Technical College, Inche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Overall discussion	14:00
15:00				15:00
16:00			Closing session	16:00
17:00	Welcome Dinner (Hosted by Ministry of Education and HRD) Sapphire & Ruby Room 4th fl.	Welcome Dinner (Hosted by President of KRIVET) Sapphire & Ruby Room 4th fl.		17:00
18:00				19:00

6. Study - Visit

☐ 방문과 토론을 통한 학점은행제도의 이해

☐ 날짜 : 6월 25일 (수), 2003, 12:30~16:00

☐ 방문기관

- 인천 인력개발원 (인천)
- 호서 전산 전문학교 (서울)

☐ Itinerary

	time	place	program	etc.
Departure	12:30 p.m.	in front of the 3rd. floor entrance, Renaissance Hotel	trip to Incheon	by 2 rental buses
			<i>sandwiches and beverages for lunch</i>	<i>provided</i>
Arrival	1:40	Inche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Center		
	1:40~2:00	Meeting Room	Introduction	20 minutes
	2:00~2:30	facilities	Tour	30 minutes
Departure	2:40	from Incheon HRD to Hoseo Computer Technical College		by 2 rental buses

Arrival	3:30	Hoseo Computer Tech. Collge		
	3:40~4:00	Meeting Room	Introduction	20 minutes
	4:00~4:15	Meeting Room	Q&A	15 minutes
	4:15~4:30	facilities	Tour	15 minutes
Departure	4:40	from Hoseo Compt. Tech. Col. to Korea House		by 2 rental buses
Arrival	5:30	Korea House		
	5:45		Dinner	
	7:00~8:00		Folk performance	1 hour
	8:00~8:30		other facilities	
Departure	8:30	from Korea House to Renaissance Seoul Hotel		by 2 rental buses
Arrival	9:15	Renaissance Seoul Hotel	Good night!	

☞ Korea House : You will experience Korean traditional culture; housing, food, and folk performance, etc.

호서전산전문학교 방문 일정

2003년 6월 25일

시 간	내 용	담당자	비 고
15:30 ~ 15:40	· 1층 도착→강당 이동	교학과직원 김상범 교수	강당:여학생 도우미 안내지배부명함받기
15:40 ~ 15:45	· 환영사	학교장	지하강당 통역 : 김상범 교수
15:45 ~ 16:05	· 본교 소개	담당교수	영어프리젠테이션 진행 : 유재봉 교수
16:05 ~ 16:10	· 질의 응답	실무담당자	
16:10 ~ 16:20	· 기념촬영	참석자, 관계자	앞정렬, 현수막 위치 사진 : 정상오 디지털 : 박종현
16:20 ~ 17:00	· 시설견학 3개조로 견학함을 안내 (김상범 교수)	1조 : 유재봉, 이용욱 2조 : 신동진, 송재환 3조 : 김상범, 오은영	윤춘덕, 김남균
17:00 ~	· 친교의 시간	참석자, 관계자	1층 휴게실 다과 준비 : 이진숙

시설견학 조별 동선

**에레베이터 고정 운행시간(4시 ~ 4시 30분) 학생 에레베이터
이용안내문**

1호관:(1호기B2 ↔ 11층, 2호기B1 → 11층)

1조(13명) : 유재봉, 이용욱

1호관(B2)→ 11층 → 10층 → 9층 → 8층 → 7층 → 5층 → 4층 →
2호관(4층) →
8층 → 7층 → 6층 → 4층(호서텔넷) → 1층 → B1(스포렉스) → 1
호관 1층 휴게실(친교시간)

2조(13명) : 신동진, 송재환

지하1층까지 계단이동1호관(B1)→ 11층 → 10층 → 9층 → 8층 →
7층 → 5층 → 4층 → 2호관(4층 호서텔넷) → 8층 → 7층 → 6층
→ 5층 → 1층 → B1(스포렉스) → 1호관 1층 휴게실(친교시간)

3조(13명) : 김상범, 오은영(1조출발 5분후)

1호관(B2)→ 11층 → 10층 → 9층 → 8층 → 7층 → 5층 → 4층 →
2호관(4층) →
8층 → 7층 → 6층 → 4층(호서텔넷) → 1층 → B1(스포렉스) → 1
호관 1층 휴게실(친교시간)

7. 보도자료 및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인적자원개발과 평생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지원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보도자료

자료제공: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홍보출판팀 (☎ 02-3485-5182, 5262)

이제는 평생교육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에 눈을 돌릴 때!

UNESCO와의 공동 세미나를 통하여

평생학습을 실현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과 경험 공유의 장 마련

- UNESCO 회원국간의 평생학습에 대한 공동의 관심사와 상호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 및 협력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고 평생학습 정책, 인적자원 개발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세미나 “평생학습의 실현 (Making Lifelong Learning a Reality)”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KRIVET)과 UNESCO의 IIEP 공동으로 6월 24일(화)에서 26일(목)까지 르네상스 서울 호텔에서 개최된다.
- 이 회의는 평생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각 국에서 정책 추진에 참고가 될 모범 사례들을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면서 평생학습에 대한 각국의 의견 수렴과 협력 증진 그리고 향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IIEP/UNESCO가 공동으로 준비해 온 세미나로서 20개국 및 국제기구에서 약 50명의 외국학자와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석 예정이다.

- 이번 세미나는 평생학습의 실현에 대한 중요성을 재천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슈들에 대한 각국의 정책 방향을 발표하게 될 것이며, 각 주제들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아시아 및 유럽 국가의 정책담당자, 관련 분야 교수, 연구원 및 국제기구 대표 등에 의해서 각국 사례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될 것이다.

- 현재 발표가 예정된 평생학습에 대한 세 가지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 제1주제 : 평생학습 : 국제적 차원의 정책적 대응(**Lifelong learning as a global policy response**)
 - 제2주제 : 평생학습과 자격제도의 중요성 (**The importance of qualification frameworks for lifelong learning**)
 - 제3주제 : 평생학습을 위한 재정 지원(**A financing framework for lifelong learning**)
 - 제4주제 : 선행학습의 인정(**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models and implementation**)
 - 제5주제 : 고등교육기관에서 평생학습의 쟁점(**The lifelong learning agenda: issues and impact for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 제6주제 : 교육개혁과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 within the framework of education reforms**)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IIEP/UNESCO와 공동으로 이번 국제회의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정책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그 동안 초·중·고등교육과 같은 정규교육기관에서의 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평생학습 분야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제고하고,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발굴하고자 함에 있다.

- 평생학습 분야야말로 인적자원개발과 정규교육이 차별화 되는 핵심영역이라고 할 때 각 국의 정책 흐름을 공유하고 모범사례에 관하여 논의하는 장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발전방향에 시사점을 도출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 즉, 지식기반사회에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직업생활이 중시되는 사회, 평생에 걸쳐 최소 5번 이상 직업을 바꾸어야 하는 시대, 이에 따라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의 개발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평생학습이야말로 향후 우리나라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서 1997년 말 외환위기로 비롯된 경제위기의 항구적인 극복을 위한 대안 모색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논제인 것이다.
- 주지하다시피, 뉴-라운드 (New Round)로 대변되는 세계무역기구 (WTO)의 개방화 전략의 전면적 확대와 더불어 정보통신기술 (ICT)의 무한 발전으로 인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위기가 확대될 수도 있고 또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
- 우리나라는 청년층의 노동시장의 진입실패로 인한 청년실업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정책의 관심 영역으로 포함된 중·장년층의 고용위기 문제와 더불어 한창 근로활동을 하는 성인들을 포함

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이야말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드는 핵심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할 때 지식기반사회에서의 평생학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 문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평생직업교육연구실 정지선, 김승연
(3485-5052, 3485-5179)

별첨 : 회의일정

회 의 일 정(안)

■ 6월 24일 (화)

- 08:30 등 록
- 09:00 **개회식 및 환영사**
 - * 개회사 : 강무섭 (KRIVET 연장)
 - * 환영사 : 윤덕홍 (교육인적자원부총리), Rupert Maclean (Director of UNESCO/ UNEVOC), Kanehisa Yamada (Director of NIER)
 - * 기조강연 : 홍기영 (대전대학교 총장, 평생교육학회장)
- 11:00 - 12:30 **총괄주제 평생학습 정책 : 국제네그의 관점에서**
☞ 발표 : David Atchoarena (IIEP)
- 14:00 - 15:30 **주제 1: 평생학습: 국제적 차원의 정책적 대응**
☞ 발표 : Mohamed Rashid Navi Basc (Malaysia)/ Han Min (China)/ Gang-Jo Kim (World Bank)
- 16:00 - 18:00 **주제 2: 평생학습과 자격제도의 중요성**
☞ 발표 : Phil Loveder(NCVER, Australia)/ Prasert Nonpala (Thailand)

■ 6월 25일 (수)

- 09:00 - 10:00 주제 3: 평생학습을 위한 재정 지원
☞ 발표 : David Atchoarena, IIEP/ Michael Fletcher (LSDA, UK)/
- 11:00 - 12:30 주제 4: 선행학습의 인정
☞ 발표 : Chantal Labruyre (CEREQ, France)/ Ji-Sun Chung (KRIVET, Korea)
- 14:00 - 18:00 **기관 방문**
☞ 학점은행제 실시 기관 방문 및 토론

■ 6월 26일 (목)

- 09:00 - 10:00 주제 5: 고등교육기관에서 평생학습의 쟁점
☞ 발표 : Kwan-Seo Koo, Director of Lifelong Learning, Ministry of Education and HRD (Korea)/ Yukiko Sawano (NIER, Japan)/ Mohd Nasir Abu Hassan (Malaysia)
- 11:00 - 12:30 주제 6: 교육개혁과 평생학습
☞ 발표 : Hiromi Sasai (Japan)/ Carl Dahlman (World Bank)
- 14:00 - 15:30 **종합토론**
- 16:00 - 17:30 **양후 추진 방향과 제언 및 폐회**

보도자료 :

IIEP/UNESCO-KRIVET “평생학습의 실현” 국제 세미나

UNESCO 회원국간의 평생학습정책에 대한 공동의 관심사와 상호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 및 협력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고, 논의하기 위한 국제세미나 “평생학습의 실현 (Making Lifelong Learning a Reality)”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과 UNESCO의 IIEP 공동으로 2003년 6월 24일 (화)에서 26일 (목)까지 르네상스 서울 호텔 국제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평생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각 국에서 정책 추진에 참고가 될 모범 사례들을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면서 평생학습에 대한 각 국의 의견 수렴과 협력 증진 그리고 향후 발전에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IIEP/UNESCO가 공동으로 준비해 온 세미나로서 약 20개여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UNESCO의 UNEVOC Rupert Maclean 소장을 비롯하여, 호주의 NCVER, 일본의 NIER, 프랑스의 CEREQ 등, 약 50명의 평생학습 분야 학자와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평생학습의 실현에 대한 중요성을 재천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슈들에 대한 각 국의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고, 각 주제들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아시아 및 유럽 국가의 정책담당자, 관련 분야 교수, 연구원 및 국제기구 대표 등에 의해서 각 국 사례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발표와 토론은 다음의 여섯 가지 주요 의제가 중심이 되었다.
 - 제1주제 : 평생학습: 국제적 차원의 정책적 대응(**Lifelong learning as a global policy response**)
 - 제2주제 : 평생학습과 자격제도의 중요성 (**The importance of qualification frameworks for lifelong learning**)
 - 제3주제 : 평생학습을 위한 재정 지원(**A financing framework for lifelong learning**)
 - 제4주제 : 선행학습의 인정(**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models and implementation**)
 - 제5주제 : 고등교육기관에서 평생학습의 쟁점(**The lifelong learning agenda: issues and impact for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 제6주제 : 교육개혁과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 within the framework of education reforms**)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IIEP/UNESCO와 공동으로 이번 국제회의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정책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그 동안 정규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평생학습 분야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제고하고,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평생학습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8. 참가자 명단

9. 주요 오찬 및 만찬

날짜	시간	내용	장소	주재
6월 24일 (화)	12:30	오찬	루비-사파이어룸	
	6:00	환영만찬	루비-사파이어룸	교육인적자원부 주재
6월 25일 (수)	12:30	오찬	루비-사파이어룸	
	6:00	환영만찬	Korea House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장
6월 26일 (목)	12:30	오찬	루비-사파이어룸	IIEP/UNESCO

기본사업 03-2

IIEP/UNESCO-KRIVET 평생학습의 실현
국제 세미나 결과 보고서

2003년 9월 30일 인쇄

2003년 9월 30일 발행

발행인 김 장 호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2동 15-1 (135-949)

홈페이지 : <http://www.krivet.re.kr>

전 화 : (02) 3485-5000, 5100

팩 스 : (02) 3485-5200

등 록 제16-1681호 (1998. 6. 11)

ISBN 89-8436-612-9 93400

인쇄처 범 신 사 (02) 503-8737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 보고서 내용 문의

전화: 02-3485-5052 E-mail: jschung@krivet.re.kr